



독일 '유럽에 한국문화 진수 보여 달라' 한국 '한국의 문화, 유럽에 감동 줄 것'

조인서를 교환한 후 우의를 다지는 폴커 노이만 독일 조직위원장(왼쪽)과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2005년 주빈국으로 선정된 데 따른 독일조직위원회와 한국 대한출판문화협회 간의 조인식 및 기자회견이 지난 10월 10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홀거 에링 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협정서 조인식에는 이정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폴커 노이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등 한·독 대표를 비롯 출협 최태경 부회장, 박광무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장 등이 참석, 조인서를 교환하고 2005년 주빈국 행사에 대한 의미를 나눴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조인식에서 폴커 노이만 위원장은 "주빈국이 초청 제도가 올해의 러시아를 끝으로 종결될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행히 제도가 존속되게 돼 2005년에 한국의 문화적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유럽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이정일 회장은 "한국은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문화와 출판의 선구자적 발자취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한



2004년 주빈국인 아랍국가연합의 기자회견.

국문화의 뿌리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인식에 배석한 문화관광부 박광무 과장은 "한국 정부는 2005년 한국 주빈국 행사와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 차원의 높은 관심을 현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조인식 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북한과 함께 주빈국으로 참여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최태경 부회장은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 북한과의 동반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폴커 노이만 위원장 역시 "조인식은 남한의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가진 것이지만 북한이 참여할 경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도

서전의 주빈국 제도 이래 분단국가가 동시에 주빈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이 공동참여하게 되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인식에는 본지 황의민 편집인을 비롯 출협 고영수 조은상 부회장, 이광석(총무담당) 송영만(국제담당) 이사, 정종진 사무국장과 문화관광부·출협 행정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 조인식에 앞서 10월 9일에는 2004년 주빈국인 아랍국가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주빈국 행사에 대한 유럽권의 우호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몽기 보스니아 아랍국가연합 교육문화과학기구(ALESCO) 사무총장은 "아랍은 지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중심에 아랍의 젊은이들이 있다"고 강조한 후 서구사회가 아랍세계를 '이슬람 테러주의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며 작금의 세계정세와 관련,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